

# 時 歲 曆 陰 際

安 仁 模

外壓被政에서 풀려난지 벌써 34년째로 접어들며 이른바 新正도 달을 넘겼고 所謂舊正을 맞아서 週를 지냈다. 그때마다 新正舊正을 놓고서 支持反對 兩論으로 言論媒體의 記事거리가 되었는데 結末이 나지 않고 舊正맞이 법석은 해가 갈수록 山불퍼지듯 더해만 간다. 政府에서는 舊正을 公休日로 잡는데 갈피를 못잡고 해마다 닥치는 이 問題를 宿題로 남겨 觀望만 한다. 宿題를 풀어헤치지 못하는 影響은 旧正 季節의 一時的이긴 하지만 計劃經濟 計劃輸出의 母胎인 躍動하는 여러 工場에서의 無分別한 線業中斷을 招來하게 되며 歸省客의 洪水로 鐵道 高速버스, 航空便할 것 없이 豫賣混雜騷動에서부터 輸送能力의 限界에 막다른 輸送機器에 依持하여 즐거워야 할 歸省旅行이 阿修羅의 交通地獄길을 往復하는 經驗을 크게 一年에 두번 旧正과 秋夕에 걸쳐 꼭 歸省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겪어보느라 알고 있으며 그 고비에 対処하는 交通當局의 腐心과 그에 附隨되는 秩序維持에 投入되는 警察當局의 人員도 적지않음을 짐작하면서 運賃의 增加라는 政府의 收入面에서는 기쁜일이겠으나 平常을 넘는 対策人員投入 등은 그만큼의 人力 浪費라고도 볼수 있으며 歸省을 치르는 國民들에게는 해마다 겪어야 할 지긋지긋한 旅行이 아닐수 없다.

벗짚겅속에 묻힌 불씨처럼 꺼지지않고 매만되면 삶에 옮겨 불길을 내뿜듯하는 이 旧正盛況을 그 嚴然한 事實을 外面할때는 이미 지났다고 보면서 所見을 펴보는것은... 旧正을 公休日로 制定하는데 反對하는 陣營은 陰曆의 非世界性(歐美中心의), 非科學性(太陽曆中心) 및 二重過歲에서오는 浪費를 들고서 陰曆설의 默殺을 主張하며 讓步가 없다. 한편 陰曆설 公休日制定贊成쪽은 祖上 때부터 오래동안 지켜온 우리들의 설로서 懷古와 情緒에 얽힌 아름다운 風俗의 歲時로서 傳統을 이어나가고 우리 의 것을 가꾸어나가자(敬祖茶禮行事等)며 陰曆歲時의 盛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公休日로 하자고 主張한다. 兩論다 같이 그 나름의 一理있겠으나 所謂旧正이라는 觀念의 後進性視와 非科學曆視하는 一部層에 對하여 筆者로서 披瀝한다. 非世界性이라고 하지만 東北東南亞에 걸쳐서 自由中國을 爲始하여 泰國以東에서는 日本, 필리핀 등 몇 나라 以外에는 傳統과 情緒따위는 無視한다는 共產主義 나라의 하나인 中共까지도 包含하여 많은 人口를 包容하고있는 隣近方地域의 여러 나라들이 陰曆설을 최고있음을 거듭되는 해마다의 旧正맞이 때의 紙上報導를 通하여 알게되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中心한 隣近方 여러 나라를 볼적에는 오히려 世界性を 띠고 있

다고 볼수 있다. 다음은 陰曆이 非科學的曆이라는데 對하여 말하자면 좀이야기가 길게됨을 두려워하면서 굳이 말을 하자면 東洋에서 季節로 본 科學的인 太陽曆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려는데 있다. 古來로 東洋의 漢字使用圈 여러 나라에서 學問하는데 最古經典의 하나로 손꼽는 中國古典인 書經(別稱書傳)의 堯典二라는 節의 글을 여기 拔萃하여 본다.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辰, 敬授人時, 分命羲仲, 宅嵎夷...中略...帝曰, 咨汝羲暨和, 曆, 三百有六旬有六日, 以潤月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成熙。」

이 글의 末尾 曆 곧 一年은 三百六旬六日을 三百有六旬有六日로 表示한 旬節과 그 以降을 分析하여 보면 「三百日 하고도 남는 것을 六旬 곧 六十日로 하고 그리고 또 남아서 六日(五日로 하고도 또 남아서 一日인데 이 一日을 五일에 더하여서 六日로 한해)로 한것은 閏月로서 하여 四季節로 定하여 한해를 이루게하여 正성으로 百官을 다스리어 나가면 百姓들이 편안히 살게되어 庶政하는 功績이 널리 빛나리라로 되어있다. 오늘의 太陽曆이 아니고 무엇인가 단 하루도 틀림없는 太陽曆이다. 이것이 中國神話時代의 堯帝記錄에 적혀있으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허긴 堯舜 神話說도 今世紀 20年代後의 中國에서 오늘날 中共에 이르기 까지 저들 殷周代의 殷代史記時代 與否를 놓고 史學者古學者들의 꾸준한 努力으로 殷墟 發掘 作業으로 殷代의 燦爛한 文化遺物의 갖가지와 甲骨文의 發見으로 그 時代의 文化事實을 캐내게 되어 헛된 輿論을 바꿔 놓는 契期가 되지 않나 짐작된다. 거슬러서 堯舜時代 또 한 어찌면 神話說이 뒤집혀서 事實時代로 밝혀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三國遺事古朝鮮記錄에서도 編者 然人師는 魏書라는 當時의 中國의 어떤 史記를 引用하여 該書 紀異券第一 古朝鮮(王儉朝鮮)節에서 記述한 것을 보면 「魏書傳, 乃往二千載(魏書篇作當時 標準)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下略으로 되어있다.

풀이하면 「위서라는 冊에서 말하기를 지난 2,000余年前에 단군왕검이 있었는데 都京을 「아사달」에 세우고 朝鮮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열었다. 그때가 바로 高와 同時代이었다」로 되어 있는데 譯者李丙燾 博士는 高는 堯와 同一하다고 풀이했다.

그렇다면 檀君紀元은 오늘날 우리들은 4312 年으로 定하

고 있으므로 해서 앞서말한 書經의 堯典을 생각하면 그 堯典의 太陽曆은 이제로부터 거슬러올라가기를 4,300 余年前에 이미 作成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切半을 접드라도 西紀紀元前 일어난다. 四時를 定했다 했으니 그에 따르는 24節氣는 그 以前일일 것이고 堯典二의 앞부분을 보면 冬至夏至 春分 秋分을 細心히 觀察測定한것을 알수 있으며 耒初(年初)는 自然冬至이며 同時에 耒末(年末)임도 틀림없을 것이었다.

이른바 요지음의 Solar Calender와 一致한다. 그런데 뚝뚝같은 陰曆이다! “웬까?”歲時行事에서 科學的인 太陽曆은 適當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氣候가 너무 추운때이고 冬至날이 年末이나 年始이나? 따라서 그러한 날이든 “달”은 첫달이나? 막달이나? 라는 디렘머에 빠지는 것과(허긴 오늘의 西洋太陽曆의 正月을 그러한 二面性으로 因해서 “야누스”의 二面性을 引用하여 January라는 英語를 비롯 거의 그러한 뜻을 가진 各自 나라의 發音대로 正月에 代名하고 있지만) 셋째는 추웠다. 더웠다 서늘하였다. 추웠다하는 季節變化와 눈을 보는것으로는 草木이 싹이나고 잎이퍼지고 꽃이피고 열매가 맺고 떨어지고 잎이지고 비가오고 눈이 오고 하는것 밖에 볼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歲月에 아무리 하여도 “달”을 보아 넘기기에 詩的인 中國人에게는 太陽曆으로서는 쓸쓸하였던 것이다. 曆에 달을 끌어 들여서 情緒를 가꾼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太陽曆 季節과 乖離가 생길 뿐더러 一年을 12個月로 잡아 한 달을 29日~30日로 하여서 365日에 辟이나 모자라고 13個月로 하면 形便없이 남아돌고 하여서, 그것을 仔細히 分析하여서 12個月 1年으로 잡고 三年마다 1달의 潤曆을 두면 거의 비슷하게 調節이 되므로 陰曆을 編曆하여 달이엿다졌다 달이그물었다 생겼다 하면서 생겨서는 보름까지 커서 차고 찻다가는 이즈러져 그물어없어지는 것을 살려서 曆으로 쓰니 潮水干滿과 不可分의 關係는 그것을 알고서는 漁夫에게 다시없는 曆일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래저래 漁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日曆이 되었다. 情緒的이며 詩的인 古代中國人에게는 年月日時에 常數名以外的 詩的인 名稱을 붙였던 것이다. 허기야 中國人은 高等料理에는 한결같이 詩的인 名稱을 붙인다고 筆者의 親舊인 同時에 建築士여러분의 親舊인 崔昌奎畏兄의 말이 생각난다. 예를 들면 秋夕節의 中國造菓의 하나인 “仲秋月餅”酒案의 “五香醬肉” 맛있는 飲食통털어서 “山珍海味”等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하물며 貴重한 歲月에서랴? 지어낸것이 天干과 地支로 된 10干과 12支는 周知의 事實로서 이것의 一回 順列組合이 所謂60甲子라고하여 이것을 하나씩 차례로 年에 붙여서 太歲(干支) 달에 붙여서 月建(干支) 日에 붙여서 日辰(干支) 時에 붙여서 時(干支) 라고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冊曆에서 널리 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陰曆 正月의 月建干支가 첫차례地支인 “子”(쥐띠)가 아니고 寅(범띠)으로서 地支順 第3番을 適用시킨 것이다. 이것은 왜일까? 살펴보니 子月은 陰曆 11日 곧 冬至달이다.

이것은 곧 年中末月인 同時에 年中初月이라는 觀念의 달로서 못박아두고 (太陽曆基準으로 科學的인) 情緒的觀念의 新年 첫달로서는 容納이 안갔던것으로 짐작된다. 朔風이 몰아부치고 森羅萬像이 쨍쨍얼어붙어 온몸이 으스스오무라드는듯한 酷寒極冷한 달을 새해 새달이라기에 너무나 을씨년스런 달이요, 앙상한 裸木에후려치는 끝은 人間本位로 보면 어찌면 “죽음”의 달같이도 여겼을지하다 한밤中은 되어도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었다고는 할수 없듯이 또한 아침이 시작 되었다고 할수없다.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 된다는 말은 된다.

이點 우리祖上들도 슬기로웠다. 깊은밤 깨끗한 밤을 子正넘어 丑時까지로 본 證據로서는 祖上들의 耒祭를 卒日子正 넘어서 지내되 鷄鳴丑時以前에 지내야 한다는 遺風으로 내려오다가 요즘은 바쁜世上이라 卒日日暮後 子正前에 지내겠금 家庭儀禮 準則에서도 定하여져 많이들 그렇게하고 있는줄 알지만 어쨌든 옛 우리祖上들은 子正前은 아직 사람들이 往來하는 때이며 첫닭이 丑時에 우는 것은 밤이가고 아침이 왔다는 信號로 본 것이다. 祖上들의 魂靈神이 子孫들의 正성어린 奉祭祀에 參席했다가 기쁘게 嚮향하고선 鷄鳴前에 서둘러서 되돌아간다는 思考에서 엿을 것이다. 따라서 丑時는 밤이 끝남과 同時에 아침이 시작된다는 觀念의 時間으로서 이것을 年中月建에 適用 시킴에 저 古代中國人들도 마찬가지로 할 것으로 忖度된다. 아직 丑時는 完全히 새아침이 시작되기는 좀 이르며 그저 밤이 끝나는時的 觀念的인 까닭에 寅時가 아침의 시작시간으로 보았을지하다. 같은 方法의 思考를 年中月建에 適用시키면 丑月은 아직 깊은 겨울의 꼬리에 該當되는달로서 아침에 該當되는 新年의 첫달로 잡기엔 너무나, 겨울스럽고 殘冷이 모질다. 따라서 自然寅月은 놓치려야 놓칠수없는 新年 첫달일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잡아보니 立春이 드는달 아니면 雨水, 驚蟄이 드는달로 되어 좀 춥더라도 新年첫달이라는데는 우길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新年歲時行事에 다시없는 달이다.

츄고, 을씨년스런 겨울을 넘기고 새해의 첫달로서 古代 農耕社會에서는 설날 하루동안만의 名節過歲로서는 閑한 그 時節의 名節맛보기에 不足하였을 것으로 작게는 보름동안 크게는 한달동안을 新正놀이로 즐겼을것은 卽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自由中國에선 보름동안 新正遺風이 더러 이어지고 있다한다. 陰曆過歲는 이런 脈搏 속에서 東洋各國間에 傳承되어왔다. 그런것이 日政 밑에서 陽曆過歲強要로 陽正을 새로 施行하는것이니 新正이오陰正은 오랫동안 써오든 것으로 없애버릴터이니 없어지는 前提

에서 旧正인가? 새해가 되어 먼저 죄는것이 旧正이오 나중새는것이 新正임직한데 都是 우리民族의 많은 長点 反面에 短点 또한 많은것中의 하나가 旧는 낡은것, 뒤떨어진 것으로보는 潛意識과 新은 “새것” “앞선것”으로 보는 所見 또한 否認할길 없다. 저 中国民族은 旧하던 오랫동안 걸쳐서 이어져온것, 歷史있는것, 튼튼한것, 보람있는것, 價値있는것으로 불출아는 民族인것같다.

이러다보니 中国禮讚論者같아서 誤解받기 쉽기에 그 反對되는 筆者의 持論一片을 비치면 나의 語文表現에서 漢字成語, 漢字語筆寫는 딱 질색인데 이른바 한글學者들間의 한글專論과 그反對論과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말이, 자꾸자꾸 스러져 없어져가고 漢字語汎濫에 洋語亂舞에 이제는 여겨워서 지쳐버린 사람의 하나이다. “나라의 말은 있으되, “나라의 글이 없어서...”하고 한탄하시던 가신님의 부르짖음도 이제는 뒤바뀌어서 “나라의글은 있어도 나라의말(純우리말)은 자꾸줄어들어서...”. 하고 외쳐보는 筆者다. 現行無秩序한 漢字用語, 로마자용어를 싹 순우리말로 바로 고쳐세워서 大衆化하면... 하고 意見을 내면 言必稱 “國粹主義”란다. 千萬의 말씀하고 反撥하는 筆者의 持論은 必要한 外國語는 國民學校서부터라고 외치고 싶은 心情이다. 순우리말專用普及化問題는 다음에 機會 있으면 펴보기로하고 이제 筆者가 中国禮讚에만 빠진것이 아니라는것을 밝힘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들은 나라에서부터 陰曆過歲에서오는 여러가지 山積된 問題들을 解決하는 長期的 永續된 對策을세워 施行하는 勇斷을 바라면서 陰正이 非世界的, 非科學的, 後進性을 띤것도 아님을 밝혔다. 大衆을 이끌어 나갈 媒體에서도 年例로 新年談話에서 旧正過歲贊反兩論을 갈라서 司會者左右便에 얹혀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사이 8·15가 30有餘回에이른 지난날을 反省하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公曆은 어디까지나 陽曆으로서 歲月走行歷程에서 世界와 발맞추고 있다. 다만 이땅에 태어난 韓國사람이기에 祖上들이 지켜온 陰正이 後進性도 非科學的도 아니기에 그 歲時歲기를 모든사람들이 즐겨 하는것을 막아둘, 아무러한 까닭이 서지않음을 느껴서 펴본데 지나지 않는다.

新正에1日公休에 旧正 1日公休로 公用 歸省休暇 期間은 15日~30日로 통털어잡고

各個人마다의 3日式을 (新正 1日을 包含하여) 그期間內에서 社會各界各層集團別로 配定割當하면, 어느집이던 正月(陰曆)中 30日間에서 3日만을 選擇하여 年賀歲初하는 制度로 調整하면 官庁, 会社, 工場은 끊임없이 業務가 繼續되고 輸送은 輸送대로 오늘과 같은 混雜을 없애게되고, 오히려 陰曆正月一個月동안의 다이어를 計劃調節할수 있어서 그에따른 施設도 갖춰 맞출수가 오늘날보다는 훨씬 쉽게 되리라고 믿는다. 敬祖는 敬祖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보름~한달동안이 내내 실명절의 계속으로 우리스런, 설쇠기를 어려서부터 겪어보게되어 자

라서 回想이 崇祖, 敬老, 愛幼, 愛親의 氣風을 되살려서 終局엔 愛國報國하는 忠孝愛의 샘이 솟게 됨직하기에 말하여 보는것이며 歸省은 故鄉往復旅行쯤으로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옛 우리들의 선비스런 思考를 지닌말로 表現하면 四方에 흩어졌던 血肉들이 그들 各自 어른들에게 教育을 받으러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先祖들의 風俗은 안방의 할머니앞에서, 사랑방의 할아버지앞에서, 늘 집안을 욱되지않게, 社會에 害되지않게, 健康하게 착하게 훌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그런것을 생각하면 三四日동안 이라지만 往復배놓고, 하루, 이틀보다 한 보름 폭쉬면서, 祖父母, 父母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서 떠나는것이 훨씬 効力이 있을게다. 그러나 그건 八字 좋은말로 제쳐놓더라도 그 趣旨는 알아야하며 社會潤澤의 한方便도 된다. 부지런하고 바쁜사람이 그러한 歸省을 맛볼수있지 四時四철 遊閑들이야 그것을 어떻게알까? 正月은 陰曆에서였지 陽曆은 本是一月이다. 科學的曆에서 어찌 數詞를 저버려? 正月을 陽曆에서 云云함은 盜用이다. 1月은 陽曆에게 되돌려주고, 正月은 陰曆으로 돌려줘서 아름다운 正月을 찾아보자? 故人이된 前아이젠 하위 美大統領의 逸話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바드大學總長으로 계셨을때 교정의 어떤 잔디밭을 學生들이 마구 지나 거닐어서 아예 길을 넓적이 터주었더니 잔디는 잔디대로 損傷없이 保護되고 學生들은 往來에 不便이 없었더라는 그분의 슬기가 생각나서 우리에게도 그런 叡智가 없나하고? 反問도 하여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周邊에서도 대견한것을 더러보는데 그렇게 崇外賤內된 思潮의 一派가 무너져 내것찾기의 覺醒으로 나타난徵兆를 青年學生들 一部에서 “관소리”며 “탈춤”이며 하는 우리것의 마당에 뛰어들어 몇분안되는 傳承保有老人들을 찾아서 熱心히 師事하는 場面을보고서 그만 눈시울이 화끈함을 느꼈다. 곰팡이술던 “溫古知新”이 번쩍이는 溫古知新으로 빛나는 뜻을 가진말로 바뀌어가고 있다. 옛날 우리祖上들은 譯官(역관)과 學者는 嚴然히 區別하였었다. 요즘 세상엔 學者와 譯官의 區別이 서지않고 내나라말을 우습게 여기고 用語의 現代代말 部分은 아예 우리말로 바로 세울줄 모르고 導入處原語 그대로를 서슴없이 오히려 有識인양 談話하는데는 내 어렸을적에는 그렇게 믿었던적도 있었지만 이제, 점점 그런것이 역겹게 들리는것은 筆者 마음보가 삐뚜러져서그런지 洋式남시대의 경우 “자새” 또는 “얼레”를 릴(reel)이라고 불러놓으니 내가 頑固라서 그럴까?

남시대를 휘싱로드(fishing rod)로는 안부르니 좀 낯까? 우리것을 좀 이 아니라 크게 눈을뜨고 찾고 가꿀때는 바로 이제부터임을 깨닫고 陰曆설 問題도 來年부터는 筆者가 叙上한바 그렇게 부끄러운것이 아니기에 官民間에서 熟考, 討論하되 우리것 바로세워 지키는 쪽으로 終結施行하는 勇斷이 있기를 바라면서 雜說을 맺는다.